

시애틀의 도시 공간 특성: 역동성과 다양성

신정엽*

Urban Characteristics of Seattle: Dynamics and Diversity

Jungyeop Shin*

요약 :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 시애틀은 오랜 도시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왔다. 커피와 관광의 이미지로 유명한 시애틀은 실제로는 고유한 사회, 인구, 문화, 경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시애틀은 다양한 근린과 경제 중심지로 구성된 다핵 도시 공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시애틀 도시 공간이 가지는 역동성과 다양성은 활력있고 창조적인 도심 이미지, 커피 문화의 중심지, 친환경 도시 경관, 진보와 자유의 분위기로 요약될 수 있다.

주요어 : 시애틀, 역동성, 다양성, 도시 공간, 미국 도시

Abstract : Seattle as a coastal city, located in the US Northwest region, has developed with long history. Being popular with the image of Coffee and sightseeing, Seattle has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in social, demographic, cultural, and economic perspectives. At the same time, Seattle's urban space has diverse neighborhoods and multinucleated urban structures with economic clusters. Further, Seattle has dynamics and diversities summarized as follows: vibrant and creative urban landscape, home of coffee, environment-friendly urban landscape, and progressive and liberal ambience.

Key Words : Seattle, Dynamics, Diversity, Urban space, American city

I.

매우 뛰어난 자연으로 에머럴드 도시¹⁾로 알려진 시애틀은 최근 미국 대도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다.²⁾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시애틀(북위 49°, 서경 122°)은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태평양 연안 도시로, 아시아, 캐나다, 알래스카로부터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애틀은 시의 면적이 369.2km²(시애틀 대도시³⁾는 21,202 km²)이며, 인구는 63만명(시애틀 대도시는 350만명)으로, 미국 15위에 해당한다. 시애틀은 워싱턴 주 King County에 위치하며, 시애틀 대도시 지역은 시애틀 시를 포함하여 Tacoma, Bellevue, Everett, Shoreline, Kenmore, Kirkland, Redmond, Mercer Island, Tukwila, Burien, SeaTac, Renton 등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그림 1).

시애틀은 이 도시를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 또는 드라마들로 유명하다. 이중, 시애틀 도심을 배경으로 한 『Sleepless in Seattle』(1992)은 큰 인기를 얻었고, 주인공의 수상 가옥(Lake Union에 위치)은 지금도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시애틀 북서부의 올림픽 산맥을 배경으로 한 뱀파이어 영화인 『Twilight』(2008)과, 시리즈 후속작인 『Twilight Saga: New Moon』(2009), 『Twilight Saga: Eclipse』(2010), 『Twilight Saga: Breaking Dawn: Part-1』(2011), 『Twilight Saga: Breaking Dawn: Part-2』(2012)도 큰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최근 상영된 한국영화 『만추』(2011)는 시애틀 도심의 Pike Place Market, Union Station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⁴⁾ 또한 시애틀을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로는, 시애틀 도심에 위치한 병원을 배경으로 한 의학 드라마 『Grey's Anatomy』(2005-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shin@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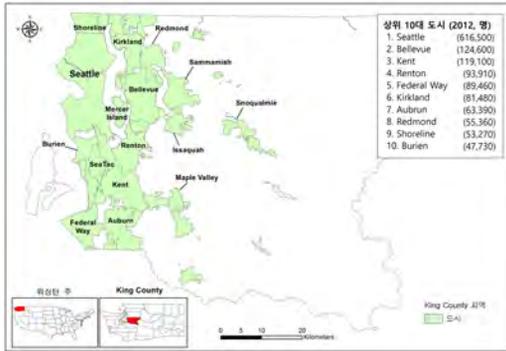


그림 1. 시애틀과 주변 지역

2014) 외에도 『Frasier』(1993-2004), 『Twin Peaks』(1990-1992), 『Dark Angel』(2000-2002) 등이 있다.

시애틀은 ‘커피의 도시’,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로 대표되는 관광 도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시 지리학 관점에서 시애틀 도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 시애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뉴욕, LA, 시카고 등과는 달리, 시애틀만이 가지는 오랜 역사적 특성과, 고유한 역동성, 다양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의 단편적인 이미지 또는 정보만으로 시애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 지리학 관점에서 시애틀의 도시 특성과 구조를 고찰하자 한다. 이러한 지리적 측면의 접근은 시애틀을 단편적인 관광지 이미지 이상의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시애틀이 가지는 도시 역동성과 다양성을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 친환경 도시, 커피의 중심지, 진보와 자유의 측면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1. 시애틀의 자연 환경

시애틀은 서쪽으로는 태평양의 입구인 퓨젯 사운드(Puget Sound)⁵⁾와 동쪽의 워싱턴 호(Lake Washington)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심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평지와 구릉지⁶⁾가 펼쳐진 전형적인 구릉성 지역이다. 퓨젯 사운드 서쪽에는 키트샵(Kitsap) 반도, 올림픽 반도가, 워싱턴 호 동쪽에는 캐스케이드(Cascade) 산맥이 위치한다(Galster and Laprade, 1991).

더 큰 스케일에서 시애틀 지역은 캐스케이드 산맥을 기준으로, 해양성 기후의 서부와 대륙성 기후의 동부로 구분될 수 있다. 서부는 올림픽 산맥, 코스트 산맥(Coast Range), 퓨젯 사운드 평지로 구성된다. 올림픽 반도에 위치한 올림픽 산맥은 2,000m 이상 높은 고도의 산 정상들과, 만년설의 경관을 가진 미국의 대표 산지이다. 또한 올림픽 산맥은 미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연 강수량 3,430mm)으로 이끼, 덩굴, 전나무, 가문비나무, 단풍나무 등의 원시림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는 원시상태의 긴 해안선(약 100km 거리)이 잘 보존되어 있다. 코스트 산맥은 태평양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형성되었으며, 퓨젯 사운드 지역은 남북 방향으로 평지, 구릉지, 섬, 반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캐스케이드 산맥은 미국 서부의 대표 산맥으로서, 레이니어 산(Mount Rainer), 베이커



그림 2. 시애틀을 배경으로 한 주요 영화와 드라마

* (a) Sleepless in Seattle(1992), (b) Twilight(2008), (c) 만추(2011), (d) Grey's Anatomy(2005~2014)



그림 3. 시애틀 주변 지역의 지형

출처 : Galster and Laprade, 1991.



그림 4. 레이니어 산의 경관

* 2013년 9월에 필자 촬영

산(Mount Baker), 세인트헬렌 산(Saint Helens), 크레이터 호 국립공원 등을 포함하며, 화산 지형, 빙하 지형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⁷⁾ 이중 시애틀 도심에서 약 170km 남동쪽에 위치한 레이니어 산(고도 4,293m)⁸⁾은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그림 4), 시애틀의 대표 랜드마크이다(Morrill *et al.*, 2011a).

시애틀은 연중 온난 습윤하며,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온난한 전형적인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시애틀의 온화한 기후는 주변의 태평양, 워싱턴 호와 관련되며, 또한 동서에 위치한 높은 올림픽 산맥, 캐스케이드 산맥의 영향을 받는다. 시애틀의 연평

균 강수량은 약 940mm으로, 강수량이 많은 올림픽 반도 서부(3,048-3,556mm), 강수량이 적은 캐스케이드 산맥 동부(152mm)와 대조된다. 시애틀은 계절적인 강수 분포를 보이는데, 5월~9월은 '건기'에, 10월~5월은 상대적으로 '우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년 중 최소 0.25mm이상의 강수일이 150일 이상이며, 흐린 날도 201일간 지속된다(Wikipedia.org). 기온 특성을 살펴보면, 시애틀 시를 중심으로 한 저지대는 연중 내내 온난한 반면, 산지는 고도에 따라 기온 차가 큰 편이다(Morrill *et al.*, 2011a). 표 1은 월별 기온과 강수량 분포를 나타내는데, 연중 영하 기온이 없으며, 평균 강수량은 겨울에 많이 분포하는

표 1. 시애틀의 월별 기후 정보

(단위: °C, mm, 일)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최고기온	7.7	10	11.7	14.4	17.8	21.1	23.9	24.4	21.1	15.6	10.6	7.7
평균최저기온	2.2	2.7	3.9	5.6	8.3	11.1	12.8	13.3	11.1	7.8	4.4	2.2
평균강수량	130.3	106.2	95.3	65.8	45.2	37.8	20.1	25.9	41.4	81	149.9	142.7
평균강수일	18	16	17	14	10	9	5	6	9	13	18	19
평균강설량	127	50.8	25.4	T*	T*	0	0	0	0	T*	25.4	76.2
최고기온 기록	17.8 (1/21/1981)	21.1 (2/27/1966)	23.9 (3/31/1987)	29.4 (4/30/1976)	33.9 (5/21/1963)	35.6 (6/30/1995)	39.4 (7/29/2009)	37.2 (8/9/1960)	36.7 (9/2/1988)	31.7 (10/1/1987)	23.4 (11/4/1949)	17.8 (12/10/1993)
최저기온 기록	-17.8 (1/31/1950)	-17.2 (2/1/1950)	-11.7 (3/4/1955)	-1.7 (4/5/1975)	-2.2 (5/1/1954)	3.3 (6/12/1952)	6.1 (7/2/1954)	6.7 (8/14/1955)	1.7 (9/27/1972)	-2.2 (10/19/1949)	-14.4 (11/15/1955)	-14.4 (12/30/1968)

출처 : 시애틀 시 홈페이지

* 극미소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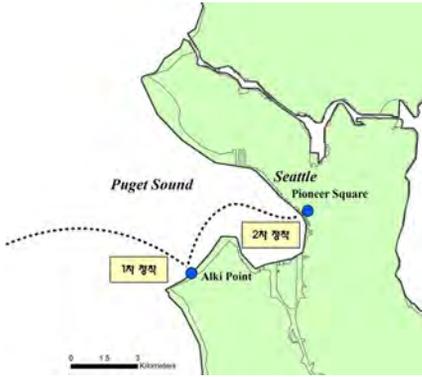


그림 5. 시애틀의 1,2차 정착 경로(왼쪽)와 알카이 포인트 해안 경관(오른쪽)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시애틀의 자연환경이 경제, 인구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시애틀은 중위도 위치와 태평양의 영향으로 온화한 서안해양성 기후를 띤다. 유리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평지에서는 농업, 산지에서는 임업 등의 경제 활동이 수행되었으며, 다른 한편 국립공원, 야생 보호 지역 등을 지정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호수, 하천 등의 수자원 등은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도시 형성,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많은 구릉지, 크고 작은 호수, 넓게 펼쳐진 해안은 가시적인 경관, 수변 공간의 장점으로 최적의 주거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다(Morrill *et al.*, 2011a).

2. 시애틀 도시 공간의 형성과 발전

시애틀은 유럽인의 정착 이전에는 전통적인 인디언 원주민 근거지였다. 4,000여년 동안 인디언 근거지였던 이 곳은 두와미시(Duwamish) 족 등이 엘리엇 베이(Elliott Bay) 주변에 17개 이상의 마을을 형성하며 거주하였다. 유럽인에 의한 이 지역의 첫 ‘방문’은 벤쿠버(George Vancouver)의 태평양 북부 탐험(1792)으로 기록된다. 이후, 1851년 9월 14일 두와미시 강 입구에 콜린스(Luther Collins) 일행이 도착하였고, 13일 후인 9월 28일 데니(Arthur Denny) 일행이 산림 자원 탐사 목적으로 시애틀 서쪽 해안에 정착하였는데, 이곳은 현재 알카이 포인트(Alki Point)⁹⁾로 알려진다. 도착한 데니 일행은 근거지를 옮겨, 현재 시애틀 도심 파이어니아 광장을 중심으로 Duwamps 마을을 건설하였다. 이때 데니 일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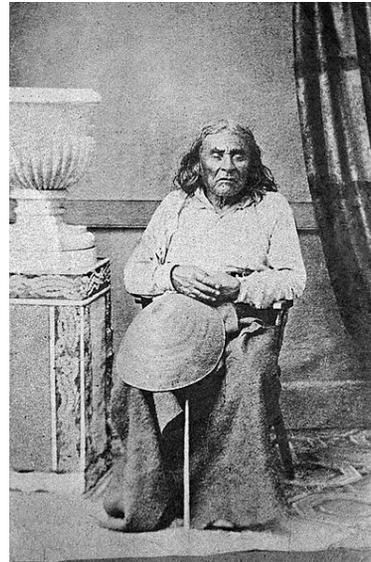


그림 6. 시애틀 추장의 사진

출처 : 시애틀 시 홈페이지

* 시애틀 추장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임.

일부는 알카이 포인트에 잔류하여 “New York”로 불리는 마을을 건설하였고, 이후 “New York Alki”로 변경하였다. 이후 일시적으로 두 정착 마을이 공존하였지만, 점차 Duwamps 마을의 세력이 커진 반면 New York Alki가 쇠락하면서 정주체계는 현재 파이어니아 광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1853년 Duwamps 마을 이름이 스쿼미시(Suquamish) 족 추장인 Chief Sealth (“Seattle”) (1786-1866)의 이름을 따서 “Seattle”로 개명되었는데(그림 6 참조),¹⁰⁾ 이로써 이 지역은 시애틀로 불리게 된다(시애틀 시 홈페이지).



그림 7. 시애틀 도심의 파이어니아 광장 경관(1917)
출처 : 워싱턴주립대학교 홈페이지

초기 시애틀은 인근 산지의 산림을 벌목하여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는 항만 운송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때 높은 언덕에서 고도가 낮은 도심 항구로 벌목된 나무를 굴러 이동시킨 도로를 “Skid Road”라 하였다.¹¹⁾ 1852년 Henry Yesler가 도심에 처음 목재소를 설립한 이래, 단기간에 많은 목재소들이 입지하였고, 시애틀 경제는 단순 벌목에서 목재 가공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시애틀은 도심을 중심으로 빠르게 도시화되었으며, 주변 지역에는 농장이 조성되었다(Beyers *et al.*, 2011).

광업도 시애틀의 초기 도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변 지역인 Renton, Newcastle 등에서 석탄이 채굴되었으며, 특히 시애틀은 “클론다이크 골드러시(Klondike Gold Rush)”를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게 된다. 즉, 1897년 캐나다 서부 유콘(Yukon) 지역 클론다이크(Klondike)에서 금광이 처음 발견된 이후 수많은 사람이 금광을 찾아 몰려들었고, 미국 남부와 이 금광과의 주 이동 경로에 있던 시애틀이 중심지로 급성장하였고¹²⁾ 금광 관련 산업이 발전하였다(MacDonald, 1968). 이 골드러시를 기념하여 시애틀은 1909년 Alaska-Yukon Pacific Expo로 불리는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였는데, 도심 근처의 워싱턴주립대학교 캠퍼스에 부지가 조성되었다. Olmsted, Dawson에 의해 설계된 엑스포 공간에는 레이니어 산을 조망하는 설계에 따라 엑스포 건물들이 조성되었으며, 이 엑스포는 6월 1일-10월 16일 동안 총 370만명이 관람하였다.

한편, 파이어니아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애틀 도시 공간은 1889년 대화재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6월 6일 오후 도심의 Front Street 한 상점에서 시작된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튿날 아침까지 목조건물로 구성된 도심 대부분을 태워버렸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천명의 시민이 대피하였고, 경제 손실도 엄청났다.¹³⁾ 다행히 도시는 빠르게 재건되었다. 대화재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 원래 간석지에 조성된 도심으로 하수가 자주 역류하였고, 또한 주변 높지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만연하였다. 대화재는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애틀은 화재 방지를 위해 목조보다는 벽돌 및 석조 건물로 재건되었고, 신규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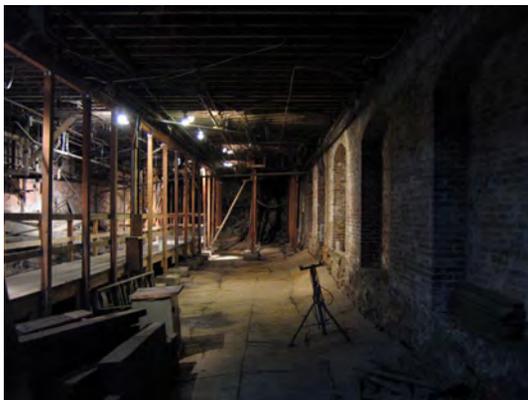


그림 8. 시애틀 화재 후 지하 공간화된 이전 도심 경관

* 파이어니아 광장에 위치한 Underground 투어에서 필자 촬영.



그림 9. Alaska-Yukon Pacific 박람회(1909)의 그림엽서
출처 : 시애틀 시 홈페이지
* 박람회 전시공간은 현재 워싱턴주립대 캠퍼스로 사용되고 있으며, 멀리 레이니어 산이 보인다.

는 기존보다 고도가 높도록 건설되어 기존 건물의 2층과 연결되었다. 처음에는 고도가 다른 신규도로, 기존 도로, 건물 1층, 2층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가, 기존 도로, 건물의 1층은 점차 지하화 되었고, 신규도로, 건물 2층이 새로운 도심의 기준면이 되었다. 대화재 이후의 지하공간 일부는 지금도 파이어니어 광장 주변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대표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Discovery Channel, 2009).

이후 시애틀은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군수 산업 발달, 해군 기지 입지 등에 힘입어 발전하였다.¹⁴⁾ 또한 빠르게 경제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중심지로 시애틀이 급부상하였고, 알래스카와의 교역 기능도 더욱 강화되었다(Beyers *et al.*, 2011). 1960년대 이후 시애틀의 도시 경관을 현재와 같이 변화시킨 계기는 1962년 4월 21일~10월 21일 동안 개최된 시애틀 세계 박람회로 알려진 Century 21 Expo이다(그림 10). 시애틀 도심 북서부에 조성된 이 박람회는 천만명의 관람객과 함께 성공적인 엑스포 중의 하나로, 관광산업을 증진시키고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켰다. 엑스포 이후, 상당수의 박람회 건물은 보존되어 현재의 시애틀 도심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표 랜드마크로는 시애틀의 상징인 스페이스 니들¹⁵⁾, 모노레일(Alweg monorail), Pacific Science Center가 있다.

3. 시애틀의 인구와 도시 구조

시애틀 시는 초기 도시 형성 이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즉, 도시 인구는 1860년 302명에서 1960년 557,087



그림 10. 21세기 시애틀 박람회(1962)의 배치도
출처 : 워싱턴주립대 홈페이지

명으로 급증하였고, 2010년 현재 60만명에 해당한다(표 2). 같은 시기 워싱턴 주에서 시애틀 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다가 1920, 1930년대를 기점으로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1920, 1930년대까지 시애틀 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의 경향을, 그리고 이후 대도시화 과정에서 행정경계인 시애틀 시를 넘어 주변으로의 교외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시애틀 시의 인구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면(표 3), 우선 시애틀의 인구밀도는 3,077명/km²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시애틀의 연령별 인구 구조는 유소년 인구 비율(13.2%), 노년 인구 비율(10.8%) 모두 워싱턴 주, 미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76%)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시애틀 시의 사회, 경제 역동성을 짐작할 수 있다.

시애틀의 성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표 3), 여성과 남성의 인구 비율이 거의 비슷하며, 공간 분포(그림 11B)에서는 시애틀 시 내부에서는 성비가 낮은 편이지만, 특히 도심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벨트 지역에서는 성비가 매우 높으며, 나머지 King County 지역은 상대적으로 성비가 높은 편이다. 이는 여성은 시애틀 중심으로, 그리고 남성은 King County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세한 공간 분포 경향을 보여준다.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시애틀 시가 17.7%로 워싱턴 주, 미국 평균보다 매우 높다(표 3). 이는 인종 구성과도 일부 관련되어 보인다. 즉,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시애틀 시는 백인 인구 비율(66.3%)이 다수를 구성하며, 아시아계 인구 비율(13.8%)도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흑인 비율(7.9%), 히스패닉계 비율(6.6%)은 훨씬 낮다(Brown and Morrill, 2011). 그리고 인종별 인구 분포는 서로 공

표 2. 워싱턴 주와 시애틀의 인구 추이(1860 ~ 2010)

년도	워싱턴 주 인구 (명)	시애틀 도시 인구 (명)	워싱턴 주 전체 중 시애틀 인구비율(%)	워싱턴 주 인구증가율(%)*	시애틀 인구증가율 (%)*
1860	11,594	302	2.6		
1870	23,955	1,107	4.6	106.6	266.6
1880	75,116	3,533	4.7	213.6	219.2
1890	357,232	42,837	12.0	375.6	1112.5
1900	518,103	80,671	15.6	45.0	88.3
1910	1,141,990	237,194	20.8	120.4	194.0
1920	1,356,621	315,312	23.2	18.8	32.9
1930	1,563,396	365,583	23.4	15.2	15.9
1940	1,736,191	368,302	21.2	11.1	0.7
1950	2,378,963	467,591	19.7	37.0	27.0
1960	2,853,214	557,087	19.5	19.9	19.1
1970	3,409,169	530,831	15.6	19.5	-4.7
1980	4,132,156	493,846	12.0	21.2	-7.0
1990	4,866,692	516,259	10.6	17.8	4.5
2000	5,894,121	563,374	9.6	21.1	9.1
2010	6,724,540	608,660	9.1	14.1	8.0

* 지난 10년간 인구의 증가비율임.

자료 : MacDonald, 1970; Wikipedia.org; 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표 3. 시애틀의 인구 특성(2013)

(인/km², %, 세)

항목	변수	시애틀 시	워싱턴 주	미국 평균
인구밀도	인구밀도	3,077	39.6	35
연령별 인구구조	15세미만 인구 비율	13.2	19.3	19.6
	15-64세 인구 비율	76.0	67.9	67.0
	65세이상 인구 비율	10.8	12.8	13.4
	중위연령	36.1	37.3	37.3
성별 인구구조	여성 인구 비율	50.0	50.2	50.8
외국인 구성*	해외 출생 인구 비율	17.7	13.2	12.9
교육 수준*	대졸 인구 비율	57.4	31.9	28.8
인종별 인구구성*	백인 인구 비율	66.3	72.5	62.6
	아시아계 인구 비율	13.8	7.2	5.3
	흑인 인구 비율	7.9	3.6	13.2
	히스패닉계 인구 비율	6.6	11.2	17.1

간적으로 차별성을 보이는데¹⁶⁾(그림 12B,C,D), 백인은 King County의 동부를 중심으로 지배적인 반면, 아시아계의 경우는 시애틀 시 북부(예, Shoreline), 동부(예, Bellevue,

Redmond), 남부(예, Federal Way, Auburn, Kent) 등을 중심으로 분포 비중이 높으며, 흑인은 시애틀 시의 남부, Renton, Tacoma와 같은 King County 남부에 주로 분포한다. 그러나 시애틀 대도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인종별 거주지 분리는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종별 거주지의 집중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가구당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12A), 시애틀 시에 인접한 동부 지역은 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Mercer Island, Bellevue 등의 중산층 거주 지역, 높은 교육 수준, 첨단산업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성을 보인다. 반면 시애틀 시의 남부, Tacoma, Bremerton 등은 소득 분포가 낮은 경향으로 전통적인 흑인 주거 지역과 관련되어 보인다(Morrill *et al.*, 2011b; Guest *et al.*, 2008).

시애틀 시(2010년 기준)는 총 가구는 283,510가구, 2.06명의 평균 가구원 특성을 가진다. 가구 구성의 경우, 1인 가구 비중(41.3%), 2인 가구 비중(33.3%)은 매우 높지만, 5인 이상 가구 비중(4.7%)은 매우 낮아, 독신 및 단핵 가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미국 통계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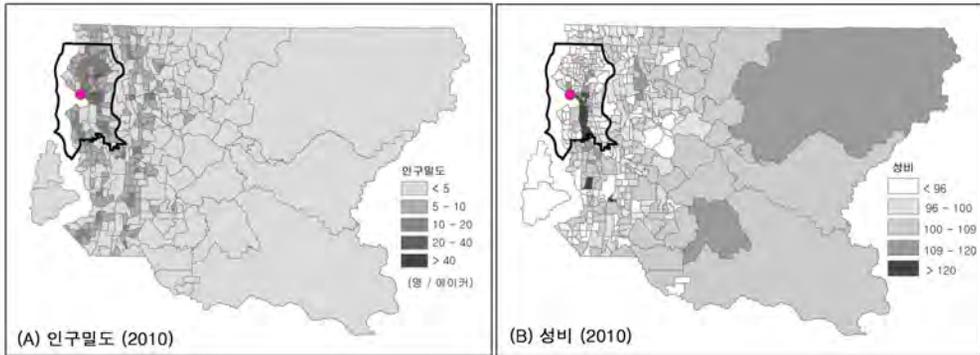


그림 11. 시애틀과 King County의 인구밀도와 성비(2010)

* 지도에서 왼쪽 지역은 시애틀 시를 나타내며, 그 안의 점은 시애틀 도심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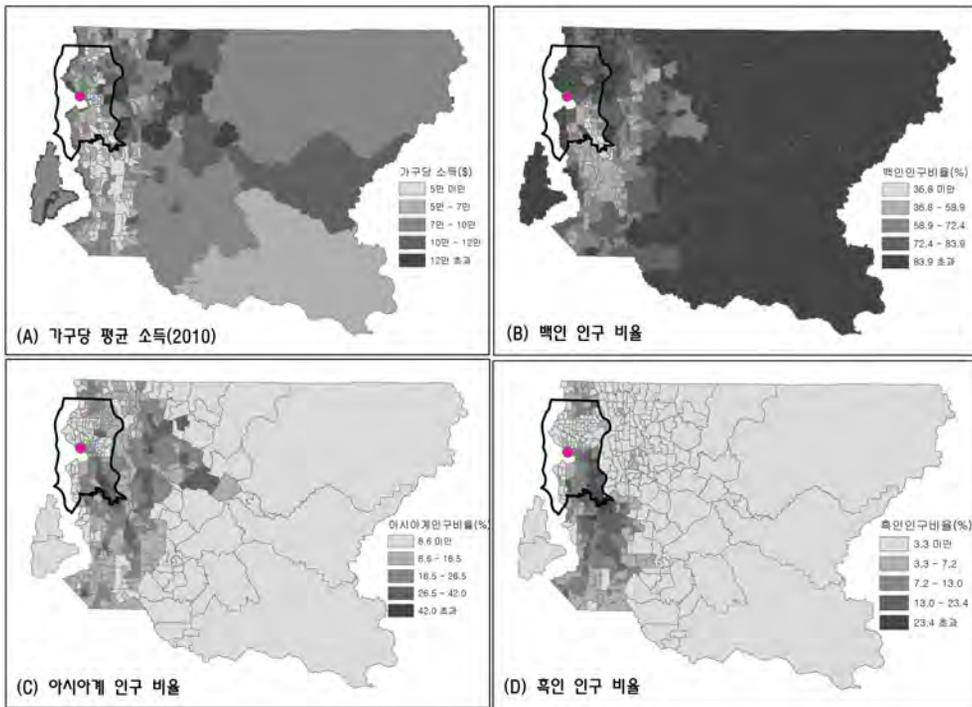


그림 12. 시애틀과 King County의 인구 분포(2010)

* 지도에서 왼쪽 지역은 시애틀 시를 나타내며, 그 안의 점은 시애틀 도심을 가리킴.

20세기 이후 시애틀 대도시는 꾸준히 교외화가 진행되어 왔다. 1900년에는 시애틀의 인구가 주로 도심에 거주하였으나, 194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교외화의 결과, 1960년에는 인구의 50%가 교외에 거주하게 되었다(MacDonald, 1970). 시애틀 대도시는 전통적인 도심과 함께, 다양한 도시 중심지들로 구성된 다핵 도시 구조를 형성

하고 있다. 그림 13은 King County내에 위치한 시애틀 대도시의 인구분포(2010)를 지도화 한 것이다. 여기서 시애틀은 인구 608,660명으로 가장 큰 중심지이며, 이외에도 Tacoma(198,397), Bellevue(122,363), Everett(103,019), Kent(92,411), Renton(90,927), Federal Way(89,306), Auburn(70,180) 등의 중심지들에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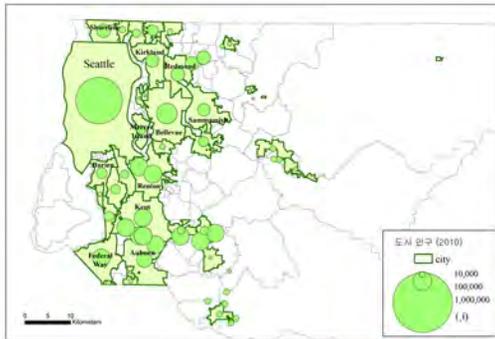


그림 13. 시애틀 대도시의 인구 분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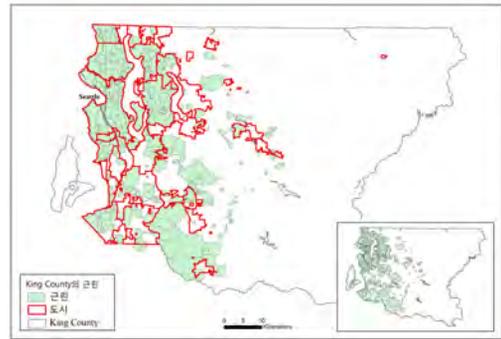


그림 14. King County의 근린 분포

어 시애틀의 주요한 경제 중심지는 크게 세 지역을 들 수 있다. 첫번째 중심지는 시애틀 도심, 워싱턴주립대학교, Bellevue 등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이다. 두번째는 시애틀 도심 남쪽에 위치한 Tacoma, Bremerton, Everett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이다. 세번째는 King County 지역의 남부의 Redmond, Sea-Tac, Kent, Auburn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Beyers *et al.*, 2011).

시애틀은 다양한 지구와 근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근린은 경제적 계층, 인종,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이는 초기 유럽 이주민들이 시애틀에 정착할 때 다양한 배경의 커뮤니티 타운이 형성되었고, 이들 지역이 오랜 역사와 변화를 거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고유한 근린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근린은 이후 행정적인 조치로 다른 지역과 병합되어 1910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근린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120여개 근린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근린들은 주로 시애틀 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대표 근린으로는 North Seattle, Greenwood, Northgate, Maple Leaf, University District, Green Lake, Fremont, Queen Anne, Capitol Hill, Rental Hill, Belltown, International District, Lakewood, West Seattle 등이 있다(그림 14). 또한 시애틀은 지형적으로 구릉지, 평지, 그리고 중간의 많은 호수와 해안 등이 복잡한 지형 구성을 갖지만, 도시 가로는 격자형의 공간 체계를 만든다. 또한 남북, 동서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가로 형태와 동서남북의 방향성 정보를 이용한 가로 체계(예, N, S, W, E)는 시애틀의 도시 형태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시애틀은 현재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도시 구조의 성장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시애틀

도심에서 해안을 따라 건설된 방파제와 고가도로는 수변 공간과 도심을 고립시켰으며, 1960년대 중반 도심을 관통하는 주간고속도로 I-5는 도심을 동서로 단절시켰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애틀 도심 발전을 위한 블루링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이희원, 2007). 또한 도심 수변 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 결과, Seattle Aquarium, Myrtle Edwards Park, Olympic Sculpture Park, Cruise ship dock, Washington State Ferry terminal, Great Wheel 등 다양한 공공 공원, 공공 시설, 카페, 레스토랑 등이 준비하다. 또한 시애틀 시는 도심 수변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2012년 Waterfront Seattle Program에 대한 개념 설계, 프레임워크 계획,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Seattle Central Waterfront Committee, 2012).

4. 시애틀의 도시 경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애틀 초기의 도시 경제는 임업, 광업, 항만운송업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미국 서부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Seeman, 1935). 이후 시애틀의 산업은 빠르게 재구조화 되었는데(그림 16), 1940년~2007년 동안 1차, 2차 산업 비중은 급감한 반면, 3차 산업 비중은 급증하여 도시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 시애틀의 고용자 수는 1940년 294,500명에서 2007년 2,384,966명으로 거의 10배 증가하였다(Beysers *et al.*, 2011).

최근 시애틀의 경제는 Microsoft, Amazon.com, Real Network, T-Mobile 등으로 대표되는 신 산업으로 특징된다. 첫번째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인터넷, 게임, 과학



그림 15. 시애틀 수변 공간 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 보고서 표지
출처 : Seattle Central Waterfront Committee, 2012.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으로 도시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두번째는 시애틀 도심, West Coast-Tacoma를 향한 관련 산업으로, 미국 서부의 3위에 해당하는 해양 교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세번째로, 시애틀은 금융, 보험을 포함한 생산자 서비스업의 중심지로서, 대규모 은행(예, Washington Mutual), 보험회사(예, Safeco) 등의 본사 외에, 다양한 컨설팅, 회계, 광고, 컴퓨터 디자인 업종이 집중되어 있다. 네번째, 시애틀은 스포츠, 예술, 관광업의 중심지이다. 시애틀은 미식축구, 야구, 축구, 여자 농구 등 프로 스포츠의 본거지 이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술문화의 중심지인데, 예를 들어 시애틀은 뉴욕, 시카고 다음으로 극장 수가 많으며, Seattle Opera, Seattle Art Museum, Benaroya Hall 등에서 다양한 공연 및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시애틀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관광의 중심지이며, 해양 및 알래스카와 연계된 크루즈 관광으로 유명하다(Beyers et al., 2011; Gray et al., 1996).

2013년 시애틀의 산업별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표 5),

표 5. 시애틀의 산업별 종사자 구성(2013)

(단위: %)

산업 구성 (대분류)	농림어업 및 광업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교통, 창고, 유틸리티	정보 관련 산업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관리·행정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보건 및 사회 복지	예술·위락 편의·음식 서비스	기타 서비스 (공공 행정 제외)	공공 행정 서비스
시애틀	0.4	3.2	7.0	2.1	10.7	3.1	3.8	6.1	19.7	23.9	11.1	5.2	3.5
미국 전체	1.9	6.2	10.5	2.8	11.6	4.9	2.2	6.7	10.8	23.2	9.3	5.0	5.0

자료 : 미국 통계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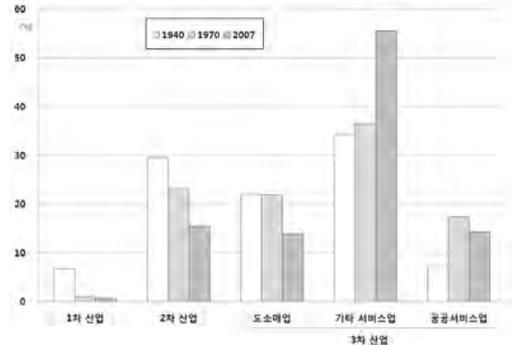


그림 16. 시애틀의 산업별 구성 변화(1940~2007)

* 고용자 수 기준, Beyers et al.(2011) 자료 재구성.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 복지업이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전문 과학 관리 행정 서비스업으로(19.7%) 미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위는 예술위락 편의 음식 서비스업, 4위는 소매업, 5위는 제조업, 6위는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고 있다.

시애틀의 지역 총생산 규모(GRDP)는 2013년 2,849억 달러 규모로, 미국 50대 대도시 중 11위에 해당하며, 일인당 지역총생산(74,701달러)도 3위에 해당한다. 실업률은 5.0%로, 미국 평균(6.2%), 워싱턴 주(6.0%)보다 낮은 반면, 시애틀의 가구 평균 소득(2013년 기준)은 91,765 달러로, 미국 평균(73,487달러)보다 훨씬 높다(미국 통계청 홈페이지). 시애틀의 높은 소득 수준은 높은 교육 수준의 풍부한 노동력, 많은 기업과 공장 집적으로 인한 고용 효과와 낮은 실업률, 첨단 및 고차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

시애틀은 매우 우수한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Kresl and Singh(2012)에 따르면, 시애틀은 도시 경쟁력에서 미국 상위 23개 도시 중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에 앞서는 9위에 해당한다.¹⁷⁾ 시애틀 경제는 그 영향력이 대도시 범주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 그리고 세계 스케일에서 발휘되고 있다. 항공 산업, 첨단 산업, 바이오 산업 등의 메카인 시애틀에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 산업의 선두주자인 보잉사,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Microsoft, Amazon.com, T-Mobile, 대형 할인 프랜차이즈의 대표인 Costco, 대표적인 백화점 프랜차이즈인 Nordstrom 등의 본사가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인 Starbucks, Tully's, Seattle Best Coffee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국적 기업, 대기업의 입지는 시애틀의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⁸⁾

III.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애틀은 오랜 역사와 함께 미국 서부의 대표 도시로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다른 미국의 도시와는 달리 시애틀은 차별화된 역동성과 다양한 도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4가지, 즉, 활기 있고 창조적인 도심 이미지, 커피 문화의 중심지, 친환경 도시 경관, 진보와 자유의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활기있고 창조적인 도심 이미지

시애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활력있는 도심으로 유명하다. 다른 미국 대도시의 슬럼화, 낙후된 도심과는 달리, 시애틀 도심은 경제, 사회, 문화, 쇼핑, 관광, 여가 등의 다양한 도시 활동이 집약되어 있다. 시애틀 도심은 쇼핑, 관광, 여가, 컨벤션, 스포츠 기능과 관련하여 연 2천여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시애틀 국제 영화제와 같은 다양한 축제가 매년 개최된다. 또한 수많은 다양한 음악 공연이 개최되는 등 예술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활기있는 시애틀 도심 이미지는 시애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Pike Place Mark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8월 17일 개장한 이 곳은 생선, 꽃, 야채 등을 판매하는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시애틀의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시장은 1950년대까지 전통시

장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이후 CBD에서의 경제 효율성이 낮아 1963년 철거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대로 살아남아 역사보존지구로 지정되었고(1971년), 시장 건물도 복원되었다. 2007년 100주년을 맞은 Pike Place Market은 많은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생선, 꽃, 장신구, 음식 등의 전통 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18). 또한 Pike Place Market은 장소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여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Pike Place Fish Market은 연어 등의 생선을 직원들끼리 던지는 퍼포먼스를 수시로 행하며, 다양한 개그와 이벤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1971년 개점된 스타벅스 1호점이 이곳에 위치하며, 이외에도 이곳 마스코트인 Rachael이라 불리는 돼지 모금 동상, 이 시장 곳곳에 거리 연주자들의 즉흥적인 연주 등이 관광객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시애틀 곳곳에는 다양한 도시 문화 경관들로 가득 차 있으며, 시애틀의 창조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적인 도시 경관의 사례로 Fremont Troll, Waiting for the Interurban을 들 수 있다. Fremont Troll은 도심 Fremont 지역에 위치한 공공 조각상으로 높이 5.5m, 무게 6톤을 차지한다. Aurora 고속도로의 오로라 다리(Aurora Bridge) 북단 아래에 위치한 Fremont Troll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전설인 "Three Billy Goats Gruff"에서 착안하여 조각되었다.¹⁹⁾ 이 동상은 거대한 트롤이 캘리포니아 변호판을 가진 폭스바겐 자동차를 짓누르면서, 도로를 지키는 형상을 하고 있다(그림 19). 그리고 Waiting for the Interurban은 Fremont 지역에 위치



그림 18. 도심의 Pike Place Market 경관

* 2013년 필자 촬영.



그림 19. 시애틀의 Fremont Troll 동상 경관

* 2013년 필자 촬영.

한 알루미늄 조각상으로, Fremont Bridge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1979년 Richard Beyer의 작품인 이 조각상은 6명의 행인과 개 한 마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형상이다.

시애틀은 음악의 본고장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시애틀에서는 다양한 음악 장르가 발전하였는데, 재즈는 Ray Charles, Quincy Jones, Ernestine Anderson, 그린지(Grunge)는 Nirvana, Pearl Jam, Soundgarden, Alice in Chains, 록 분야는 Jimi Hendrix, 힙합은 Sir Mix-a-Lot, Blue Scholars, Sadistik, Grieves, Macklemore 등으로 대표된다. 1960년대에 시애틀 도심, 워싱턴주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이 나타났으며, 특히, 1980년 중반에서 1990년대의 그린지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alternative Rock 장르인 그린지는 시애틀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을 강타하였는데, 두 큰 산맥 사이에 위치한 구릉지, 수많은 호수, 수변 공간 등의 다양한 자연환경이 이러한 음악의 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Mitchell *et al.*, 2011).

2. 커피 문화의 중심지

커피의 도시로 불리는 시애틀은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애틀 브랜드들이 즐비하다. 실제로 시애틀은 다른 미국 도시보다 더 많은 커피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애틀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 커피 마실 기회를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시애틀은 주요 커피 회사 본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커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를 중심으로 대중화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커피 품질과 맛으로 차별화된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Lyons, 2005). 이와 관련하여 시애틀을 중심으로 인스턴트 커피와는 차별화된 고급 커피 원두, 원두 로스팅 방법, 에스프레소 방법 등이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최대 커피 브랜드 회사인 Starbucks는 1971년 도시에 위치한 Pike Place Market에서 태동하여, 현재 세계 64개국 약 2만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Tully's는 1992년 시애틀에서 설립된 후, 현재 480여개 매장을 보유한 대표 브랜드이다. 이외에도 유명한 커피 브랜드로는 Espresso Vivace, Victrola Coffee, Caffe Vita, Seattle's Best Coffee, Zoka Coffee 등이 있다(표 6). 다양한 커피 브랜드 회사 외에도 독자적인 커피를 서비스하는 유명한 카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Bauhaus Books + coffee(1993, Capitol Hill), Café Allegro(1975, University District), Caffe Umbria(1948, Pioneer Square), Monorail Espresso(1980, Westlake Center), Top Pot Doughnuts(2002, Capitol Hill), Trabant Coffee and Chai(2003, University District), Cloud City(2002, Maple Leaf) 등이 있다(그림 20).²⁰⁾ 특히, 시애틀은 커피로 유명한 카페들이 밀집된 클러스터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Capitol Hill로서, Vivace, Victrola Coffee, Top Pot Coffee, Caffe Vita, Stumptown Coffee, Black Coffee, Café Pettirose, Odd Fellows Cafe 등이 집결해 있다. 이처럼 시애틀에서는 많은 커피 브랜드와 함께 어느 곳에서든지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또한 테라스 등에서 다양한 커피를 마시는 경관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유 중의 하나는 시애틀의 자연 및 사회, 문화적 분위기로 설명될 수 있다.

표 6. 시애틀이 본사인 주요 커피 회사 현황

커피 회사	설립 연도	본사/본점
Espresso Vivace	1988	Capitol Hill
Victrola Coffee	2000	Pike Street
Caffe Vita	1995	Queen Anne
Seattle's Best Coffee	1988	Utah Avenue
Starbucks	1971	Pike Place Market
Tully's	1992	Airport Way
Zoka Coffee	1996	Green Lake



그림 20. 시애틀에서 탄생한 주요 커피 기업 로고

즉, 시애틀은 연중 날씨가 춥지 않아 야외활동에 큰 장애가 없으며, 또한 종종 흐리거나 이슬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거리 또는 이동 중간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젊고 다양한 시민들이 활력있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사회, 문화 분위기에서 커피 문화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라 할 수 있다.

3. 친환경 도시 경관으로서의 시애틀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시애틀은 친환경 도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 시애틀의 친환경 이미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청정 기술과 관련된다. 시애틀은 2010년 청정 분야의 3만 여 개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13위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애틀의 청

정 기술 기반 경제는 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시애틀 시 홈페이지).

두번째는 대표적인 도시 자원의 재활용 사례로 Gas Works Park을 들 수 있다. 친환경 공원으로 유명한 Gas Works Park은 77,000m²의 면적으로 시애틀 도심 근처인 Lake Union에 인접하고 있다. 원래 공원 이전에는 1906년 이래 석탄가스화 공장이 입지하였으나 도시 산업의 재구조화 등으로 1956년 이 공장이 폐쇄되었다. 1962년 시애틀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 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이 공원은 기존의 공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공장 시설을 활용하였다(시애틀 시 홈페이지). 즉, 컴프레서 시설을 아동의 놀이터로, 보일러실을 피크닉 보금자리로, 그리고 연결된 철로를 자전거 길로 변모시키면서 공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평가를 받는다(그림 21).

세번째는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시애틀 도심으로의 통근자 66%가 1인 자가용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자가용 출근 비율도 2000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시애틀 도심으로의 통근은 주로 대중교통이 담당하는데, King County Metro, Sound Transit, Community Transit을 중심으로 한 버스가 주를 이루며, 이외에도 경전철, 모노레일, 도심 철도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카풀 전용 차선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에 75,000여개 주차 공간, 5천여개 길거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330여개 Smart Car 정책을 이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공유하고 사용할



그림 21. Gas Works Park의 경관

* 2013년 필자 촬영.

수 있게 한다. 특히, 자전거는 시애틀 도심의 유명한 통근 방식으로 도심에 6천개 이상의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약 54km 길이의 자전거 레인을 조성하였다(Downtown Seattle Association, 2013).

4. 진보와 자유의 도시

시애틀 지역은 전통적인 도시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예를 들어 Florida(2002)는 미국 50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재능 지수, 쿨 지수, 다양성 지수, 기술중심 지수를 평가하였는데, 이 평가에서 시애틀은 각 부문에서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²¹⁾

시애틀 지역의 진보 성향은 King County 지명 유래에서 일부 살펴볼 수 있다. 시애틀 시가 위치한 King County의 이름은 당시 워싱턴 주가 탄생할 때 부통령인 “William Rufus King”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으며,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King County의 정치 성향은 점차 보수에서 진보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후반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²²⁾ 이러한 정치적 변화 분위기에서, 1980년대에 카운티 이름을 Martin Luther King의 의미로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1986년 2월 24일 King County 의회가 Martin Luther King을 기념하는 카운티 이름 변경 법안을 통과시켰고, 2005년 워싱턴 주지사가 Senate Bill 5332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써 발효되었으며, 루터 킹 이미지인 현재 로고가 2007년 확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애틀의 진보 성향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은 시애틀 도심 근처의 Fremont에 위치한 5m 높이의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Vladimir Lenin) 동상과 관련된다. 이 동상은 원래 1988년 체코(현 슬로바키아) 포프라트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1989년 체코 공산주의 몰락(“Velvet Revolution”) 이후, 레닌 광장에서 철거되었다. 그런데 워싱턴 주 출신 교사인 Lewis Carpenter가 고철 처리장에 방치되어 있던 이 동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1993년 13,000 달러에 매입하였다. 그리고 매입한 동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시애틀로 운송하여 가져왔다. 그런데, 미국 시애틀에서는 도착한 이 레닌 동상의 공공 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 진영간에 격렬한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994년 Carpenter가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 결과 동상은 방치되었다. 이듬해 유가족이 이 동상을 Fremont 지역에 설치하였고, 이 동상을 매매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아직 매매가 되지 않고, 현재에도 찬반 논란 속에 Fremont 지역에서 전시되고 있다(그림 22). 레닌 동상이 위치한 Fremont 지역은 예술, 동성애 등과 관련한 특색있는 근린으로, 각종 행사 등에서 이 동상은 다양하게 장식되거나 희화화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거나, 각종 연예인 또는 장식을 처리하여 전시되기도 한다.

시애틀의 또 다른 다양성은 동성애와 관련된다. 시애틀



그림 22. 시애틀 Fremont 지역에 위치한 레닌 동상(왼쪽)과 안내판(오른쪽)

* 2013년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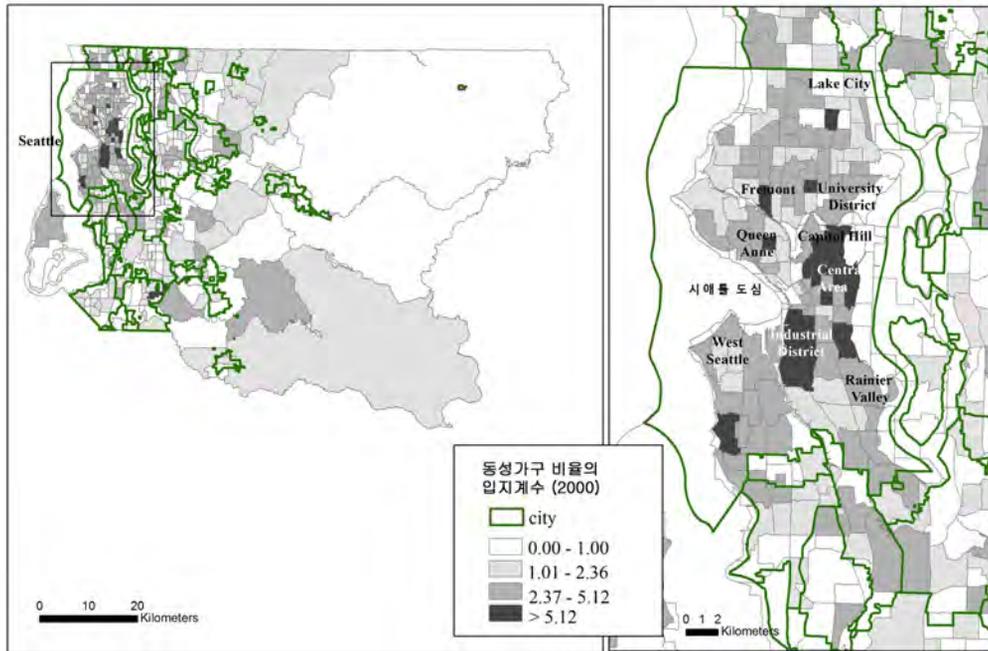


그림 23. 시애틀 지역의 동성 가구 비율의 입지계수(2000)

자료 : 미국 통계청 홈페이지.

들은 동성애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도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가장 친화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다.²³⁾ Seattle Times 기사에 의하면, 2006년 시애틀의 동성애 인구는 주민의 12.9%인 57,900명으로, 미국 50대 대도시 중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동성애자 공간은 주로 시애틀 도심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그림 23은 시애틀 지역의 동성 가구 비율을 입지 계수로 지도화 한 것이다.²⁴⁾ 지도를 통해 시애틀 도심, 특히 Capitol Hill, Industrial District, Fremont 지역을 중심으로 동성애 가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성애 이미지의 대표 지역인 Capitol Hill은 샌프란시스코 Castro District, 뉴욕 Greenwich Village와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는데, 성소수자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성소수자가 자주 방문하는 게이바, 나이트클럽, 성소수자 전용 클럽 등의 상업 기능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아파트는 성소수자의 주거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apitol Hill은 AIDS 재단 북서지부, Gay Community Social Services, Seattle Counseling Service for Sexual Minorities, Seattle Lesbian and Gay Community Center 등의 기관, 조직이 입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문화 경관으로 무지개 국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Cal Anderson Park, Volunteer Park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의 전용 공공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 Capitol Hill 외에도 도심, 파이어니어 광장, University District, Wallingford 등을 중심으로 성소수자가 이용하는 레스토랑, 바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Central District, Madison Valley, Leschi 등을 중심으로 동성애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Brown *et al.*, 2011).

또한 시애틀에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축제, 이벤트들이 개최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74년부터 시작된 Seattle Pride Parade는 도심에서 매년 진행되며, 2014년에는 40주년 기념으로 1만명이 참가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시애틀 공공 공간에서 각종 퍼레이드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시애틀 시장으로 당선된 Ed Murray는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동성 결혼 법제화와 관련하여, 워싱턴 주도 1997년 이후 의회차원의 논의와 법제화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2012년 11월 주민 투표(법안 Referendum 74)에서 찬성 53.7%로 동성 결혼을 공식 허용하였다. 법제화 이후 첫 9개월 동안 7천여쌍의 동성애 커플이 공식

결혼하였으며, 이중 절반이 King County에 거주하고 있다(Wikipedia.org). 마지막으로 주목할만한 진보적 특성은 마리화나의 합법화이다. 그 동안 미국은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20개 주에서 허용해왔지만, 2012년 11월 워싱턴 주 주민 투표(법안 Initiative 502)에서 55.7%의 찬성으로 기호용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였다(시애틀 시 홈페이지). 따라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주가 두번째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선언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이 시애틀에서 발생하고 나타나는 것은 시애틀이 가지는 진보와 자유적인 분위기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IV.

본 연구는 미국 북서부의 대표 도시인 시애틀의 도시 특성을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커피의 본산지이며 미국 서부 관광의 중심지인 시애틀의 이미지와는 달리, 시애틀은 오랜 도시 역사를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인구 특성이 변화하였다. 또한 아시아와 캐나다 서부, 알래스카와의 교통 요지이면서 관문인 시애틀은 중요한 지역 중심지이기도 하다.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백인의 비중이 높지만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양한 개방적 사회 분위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을 도시 형성과 역사, 인구와 도시 구조, 경제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시애틀 도시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활기차고 창조적인 도시 경관, 커피의 중심지, 친환경적인 도시 경관, 진보와 자유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처럼 시애틀은 오랜 도시 역사를 가지는 전통과 함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가지는 매력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도시 지리학의 관점에서 시애틀을 조명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적 토대를 중심으로 시애틀의 도시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선행 연구의 제약과 다양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는 기술적인 측면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향후 시애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註

1) 시애틀은 에머럴드 도시라는 별명 이외에도, ‘여왕

의 도시(Queen City)’, ‘알래스카로의 관문 도시’, ‘비의 도시(Rain city)’ 등으로도 불린다.

- 2) 미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시애틀은 미국 대도시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선정되었다(Seattle Times, 2014년 5월 22일자)
- 3) 시애틀 대도시 지역은 시애틀 시(City of Seattle)를 중심으로 구성된 Seattle-Tacoma-Bellevue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지역으로 정의되며, King County (시애틀 시와 그 인접 지역), Snohomish County(시애틀 대도시의 북부), Pierce County(시애틀 대도시의 남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wikipedia.org)
- 4) 이외에도 「It happened at the world's fair」 (1963), 「Stake Out」 (1987), 「Singles」 (1992), Nicolas Cage 주연의 「It Could Happen to you」 (1994), 「Rose Red」 (2000), Jenifer Aniston 주연의 「Love Happens」 (2009), 「Laggies」 (2014) 등이 있다.
- 5) 이 명칭은 18세기 후반 이 곳을 탐험하였던 벤쿠버 탐험대의 대원이었던 Peter Puget의 이름을 딴 것이다.
- 6) Crowley(2003)에 의하면, 시애틀 도심은 7개의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Capitol Hill, First Hill, West Seattle, Beacon Hill, Magnolia, Denny Hill, Queen Anne이다.
- 7) 시애틀은 지질적으로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 종종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28일에 강도 6.8의 Nisqually 지진이 발생하여 파이어니어 광장(Pioneer Square)을 중심으로 한 도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외에도 1700년 1월 26일(강도 9), 1872년 12월 14일(7.3), 1949년 4월 13일(7.1), 1965년 4월 29일(6.5) 등의 주요 지진 기록이 있다(Wikipedia.org).
- 8) 레이니어 산은 국립공원(1899년)과 야생보호지역(1988년)으로 지정되었으며, 26개 빙하와 함께, 침엽수림과 초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
- 9) Seattle의 초기 정착지인 알카이 포인트는 시애틀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해안 지점이다. 알카이 포인트는 멀리 도심과 올림픽 산맥이 보이는 수려한 경관을 가지며, 해변은 모래 해변, 방갈로,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입지한 주요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다.
- 10) 시애틀 추장(Chief Seattle, 1786-1866)의 원래 이름은 Dkhw'Duw'Absh로 알려져 있다. 시애틀 추장은 유럽인의 정착과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 피어스에게

- 보낸 유명한 연설문으로 유명한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854년 3월 11일 수행한 것이 유력하며, 토지이용에 대한 경제적 관점보다 환경적 관점에서의 화합적 논의를 담고 있다. 시애틀 추장에 대한 유적이거나 자료는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으며, 파이어니아 광장 등에 동상이 남아있다 (Wikipedia.org).
- 11) 이 도로는 현재 시애틀 도심의 Yesler Way이며, 당시 도로 주변에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낡고 쇠락한 지구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낙후된 도심 쇠퇴 지구를 "Skid Row"라 부르게 되었다.
 - 12) 시애틀의 인구는 1890년 42,837명에서 1900년 80,885명으로 급증하였다.
 - 13) 대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당시 약 2천만 달러로서 현재 가치로 65억 달러에 해당한다.
 - 14) 이 시기 Bill Boeing과 Conrad Westervelt는 1916년 시애틀에 보잉사를 설립하였다. 1920년대 항공기 수요 급증에 따라 시애틀의 항공 산업이 발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항공 산업,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시애틀의 경제가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보잉사의 고용 규모는 1940년 4천명에서 1944년 5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Bremerton Navy Shipyard도 1945년 고용이 32,500명으로 매우 큰 편이었다 (Beyers *et al.*, 2011).
 - 15) 높이 184미터의 스페이스 니들은 1962년 시애틀 세계 박람회 때 만들어진 시애틀 대표 랜드마크로서, 매일 2만명의 관광객과 매년 2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 16) 시애틀에 오래 전부터 거주하였던 인디언 원주민은 1880년까지 키트샵(Kittsap), 스노호미시(Snohomish) 카운티 등에 조성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그리고 중국인 철도 노동 이주자가 도심 International District에 정착하였고, 1920년대 일본인 농업 이주자가 King County 남부에 정착하였다. 이후 한국(1950년대), 베트남, 캄보디아(1960, 1970년대)의 이주가 이어졌고, 1990년 이후 첨단 산업 노동력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이주가 지속되었다(Morrill *et al.*, 2011).
 - 17) Kresl and Singh(2012)는 미국 23개 대도시에 대한 도시 경쟁력 지수로 소득, 소매매출액, 전문서비스 업종 증가를 종합하였으며, 1997-2002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 경쟁력 순위를 선정하였다.
 - 18) 시애틀에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입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Fortune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2014년 기준)에는 Costco(18위), 보잉사(27위), Amazon.com(29위), Microsoft(31위), Starbucks(187위), Nordstrom(224위), Expeditors International of Washington(413위), Alaska Air Group(484위)이 있다.
 - 19) 1990년 Steve Badanes 등 4명 조각가가 Fremont Art Council가 공모한 경연에 출품하여 당선된 작품이다.
 - 20) 팔호 안의 정보는 설립 연도와 본점 또는 주요 카페 위치를 나타낸다.
 - 21) Florida(2002)는 재능 지수(talent index)로서 높은 교육 수준의 인구 비율을, 쿨 지수(coolness index)로는 22-29세 인구 비율, 밤문화 상업시설 수, 문화 시설 수를 종합하였으며, 다양성 지수는 동성애자인 게이 지수를, 기술중심지수(tech-pole index)는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 22) King County에서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1960년 공화당 후보가 50.8%, 민주당 후보가 47.4%로 득표하였는데, 1988년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44.78%, 민주당 후보가 53.88%를 차지하였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28.5%, 민주당 후보가 69.1%를 득표하였다(Wikipedia.org).
 - 23) nerdwallet 사이트의 분석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성소수자(LGBT)에 친화적인 도시를 평가하면서, 동성애 가구비율, HRC 평등지수, 성범죄율 등의 지표를 종합한 결과, 시애틀이 1위로 가장 성소수자 친화적인 도시로 선정하였다.
 - 24) 센서스 트랙단위로 전체 가구에서 동성 가구의 비율은 전국 비율과 비교하여 입지 계수가 산출하였음. 관련 방법론에 대해서는 Morrill *et al.*(2011)을 참조할 것.

참고문헌

이희원, 2007, "시애틀 도심가로 구성체계 및 계획특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8(5), 1201-1210.

Beyers, W., Morrill, R., Harrison, J., and Kauffman, C., Velluzzi, N., Chan, K., and Cohen, S., 2011, Economic geographies, in Brown, M. and Morrill,

- R. eds., *Seattle Geographi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47.
- Brown, M. and Morrill, R. eds., 2011, *Seattle Geographi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arney, G., 2011, Music geography,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18(1), 1-10.
- Crowley, W., 2003, *Seattle's Seven Hills*, HistoryLink (<http://www.historylink.org>).
- Coles, R., 2006, *Race and Family: A Structural Approach*, New York: Sage.
- Discovery Channel, 2000, *Insight Guide Seattle*, Insight Print Services.
- Downtown Seattle Association, 2013, *2013 State of downtown Economic Report*, Research project report.
- Florida, R., 2002, The Economic Geography of Talent, *AAAG*, 92(4), 743-755.
- Galster, R. and Laprade, W., 1991, *Geology of Seattle, Washington*, Bulletin of the association of Engineering Geologists.
- Gray, M., Golob, E., and Markusen, A., 1996, Big firms, long arms, wide shoulders: the 'hub-and-spoke' industrial district in the Seattle Region, *Regional Studies*, 30(7), 651-666.
- Guest, A., Kubrin, C., and Cover, J., 2008, Heterogeneity and harmony: neighbouring relationships among whites in ethnically diverse neighborhoods in Seattle, *Urban Studies*, 45(3), 501-526.
- Kresel, P. and Singh, B., 2012, Urban competitiveness and US metropolitan centres, *Urban Studies*, 49(2), 239-254.
- Liu, C. and Painter, G., 2012, Immigrant settlement and employment suburbanization in the US: is there a spatial mismatch?, *Urban Studies*, 49(5), 979-1002.
- Lyons, J., 2005, 'Think seattle, act globally', *Cultural Studies*, 19(1), 14-34.
- MacDonald, N., 1968, Seattle, Vancouver, and the Klondike, *Canadian Historical Review*, 49, 234-246.
- Mitchell, K., Blyth, M., Boyles, E., Gogic, S., Kramak, J., Lee, R., Pickus, H., Roth, G., Stenberg, A., Straub, N., Stronach, L., and Urness, C., 2011, Cultural geographies, in Brown, M. and Morrill, R. eds., *Seattle Geographi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65-184.
- Morrill, R., Beyers, W., and Brown, M., 2011a, Introducing Seattle geographies, in Brown, M. and Morrill, R. eds., *Seattle Geographi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3-18.
- Morrill, R., Withers, S., Sparks, T., Ruiz, T., Ellis, M., Veninga, C., England, K., and Simonson, G., Brown, M., Wang, S., and Knopp, L., 2011b, Social geographies, in Brown, M. and Morrill, R. eds., *Seattle Geographi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16-164.
- Puget Sound Regional Council, 2009, *Vision 2040: The Growth management, Environmental, Economic, and Transportation Strategy for the Central Puget Sound region*.
- Seattle Central Waterfront Committee, 2012, *Strategic Plan for Realizing the Waterfront Seattle Vision*, City Seattle Report.
- Seeman, A., 1935, Seattle as a port city, *Economic Geography*, 11(1), 20-32.
- US Census Bureau, 2011, *Same-sex couple households*, American Community Survey Briefs.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www.bls.gov
- 미국 시애틀 시 홈페이지, <http://www.seattle.gov>
-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 홈페이지, <http://www.census.gov>
- 미국 통계청 인구 추계(US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s), <http://www.census.gov/popest>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www.wikipedia.org>
- 워싱턴주립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washington.edu>
-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of Seattle & King County (EDC) 홈페이지, <http://edc-seaking.org>
- Nerdwallet 웹사이트, <http://www.nerdwallet.com/blog/cities/most-lgbt-friendly-cities/>
- Seattle Vision 2040, <http://www.psrc.org/growth/vision2040>
- US Climate Data, <http://www.usclimatedata.com/>
- Seattle Times: Census: Seattle is the fastest-growing big city in the U.S., 2014년 5월 22일자 기사.

Seattle Times: 12.9% in Seattle are gay or bisexual, second only to S.F., study says, 2006년 11월 16일자 기사.

TheDailyBest: 20 Most Caffeinated Cities, 2010년 7월 27일자 기사.

교신 : 신정엽, 151-748,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geoshin@snu.ac.kr)

Correspondence : Jungyeop Shin, 151-748,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shin@snu.ac.kr)

투 고 일: 2015년 5월 27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5일

투고확정일: 2015년 6월 10일

